

2017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성경에 있는 생명에 대한 핵심적인 계시

메시지 14

로마서 8장—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

성경 말씀: 롬 8:2, 10, 4-6, 11, 13-15, 28-29

I.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믿는이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위해 신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롬 8:2, 10, 6, 11, 28-29.

- A.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는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고 교회의 건축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것은 생명의 영의 법의 생명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영께서 이 생명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을 함양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도록 우리 각자 안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계신다—롬 8:2, 고후 3:6, 요일 5:16.
- B. 우리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사는 길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참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반드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통제받고 지시받아야 한다—롬 8:2.
-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롬 8:4.
 -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고집한다면, 그 일 자체가 죄악되고 부도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육체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 성경에 따르면, 제 삼의 선택 혹은 중립지대는 없다. 모든 것은 육체에 따른 것이거나 영에 따른 것이다—롬 8:4, 6, 9, 요 3:6, 갈 5:17, 6:8, 벧전 3:18.
 - 우리의 육체를 제하고 남는 것이 영이다. 우리는 육체가 무엇인지 앎으로, 단순히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써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
 - 우리는 영을 따를 필요가 있다—롬 8:5.
 -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내적인 법, 즉 생명의 영의 법의 실재화이다—롬 8:2.
 - 육체를 따르는 것은 죄와 죽음의 법에 비유되는 중력의 법에 따라 땅 위에 머무는 것과 같다.
 -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영의 법에 비유되는 공기 역학의 법에 따라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같다.
 -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우리가 영을 따르기를 선택할 때, 생명의 영의 법은 즉시 자동적으로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비교 롬 8:6.
 -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의 스위치를 켜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영적 습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딤후 4:7.
 -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시키는 영의 법이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설치 되었다. 그분의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해,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높임으로써 우리의 영을 훈련하면 된다—사 12:2-6.
 - 우리는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롬 8:5.
 -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 영의 일들에 두는 것, 즉 우리의 생각을 항상 그 영의 일들, 즉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에 점유되게 하는 것이다.

- b.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고전 2:9-11, 14.
 - c.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그 영의 일들, 즉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에 점유되게 하는 습관을 세울 필요가 있다.
 - d. 아가서에 따르면, 추구하는 이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병이 났다(아 2:5, 5:8). 그녀의 생각 안에는 오직 주님 만이 있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 e. 영적 전쟁의 비결은 우리의 생각이 비어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두 영들, 즉 사람의 영과 함께 하시는 신성한 영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에 연결시키신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에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롬 8:6, 16.
 - f. 로마서 8 장 6 절의 ‘영에 둔 생각’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영의 생각’이다. 그리스도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점유되고, 적셔진 생각이다—빌 2:5, 고전 2:16.
4.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필요가 있다—롬 8:13, 5.
 - a. 몸의 행실들은 우리의 옛 습관들이다. 이들 행실들은 다만 죄악된 일들 뿐 아니라 그 영을 떠나서 우리의 몸에 의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 b. 우리가 먼저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몸의 행실들을 죽이기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럴때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이 행실들에 적용하기 위해 오시어 그 행실들을 죽이신다.
 5.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롬 8:14.
 - a. 우리는 그 영의 인도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인도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인도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행하고 처신하게 될 것이다.
 - b. 여기에서의 인도는 단지 그 영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인도가 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이신 그분을 관심할 때 우리는 즉시 저절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
 6.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필요가 있다—v. 15.
 - a. ‘아바’는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 ‘Pater’의 번역이다. 아람어 칭호를 헬라어 칭호 연결함으로써 아버지께 외칠 때 더 강한 애정이 표현된다.
 - b. 그렇게 애정어린 외침은 진정한 아들과 낳으신 아버지 간의 생명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낸다—v. 16.

II.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초점과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 A.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이 그분의 단체적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목적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다—엡 1:3-5.
- B.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께서 사람을 통해 표현되시는 것이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다. 사람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로 만들어 사람이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을 살아 내게 하기 위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부터 표현 되신다.
- C. 스가랴서 12 장 1 절은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한다.
 1.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갈망하시는 곳이므로 사람의 영은 하늘과 땅에 견주어진다—엡 2:22, 비교 딤후 4:22.

2. 하늘들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갖고 창조되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살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이다.
- D. 우주 안의 중심 초점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우주 안의 그 어떤 것도 이것 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사 66:1-2, 요 14:23, 15:4.
- E.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하나이심으로,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찬양해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인격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만들고 계신다—엡 3:14-17.
- F. 로마서 8 장에 있는 내주하시는 영은 삼일 하나님이시다.
1. ‘하나님의 영’과 ‘그 영’과 ‘하나님’은 동격이다. 이것은 그 영과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을 가리킨다—롬 8:9.
 2. 이와 같이, 로마서 8 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과 ‘생명의 영’은 그 영께서 그리스도, 부활시키시는 분, 생명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삼일 하나님의 세 위격 모두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롬 8:9, 11, 2.
 3. 로마서 8 장에 있는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결과 적용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 그 영은 우리에게 도달하신 삼일 하나님, 즉 우리에게 적용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4.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함으로써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다—고후 4:7.
- G.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 오실 때, 우리의 영은 거둬나고, 그분은 우리의 영을 생명이 되게 하신다(롬 8:10).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 관한 일들에 둘 때, 우리의 생각은 생명이시다(롬 8:6). 더 나아가 부활시키시는 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다(롬 8:11).
1.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분의 구원 가운데 그분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인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다.
 2.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몸에 주어진 생명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과 적용이신 내주하시는 영이시다.
 3. 우리가 약하고 생명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숨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애 3:55-56, 찬송가 65 장(영한 동번 찬송가 73 장) 2 절
 4.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이신 그 영을 들이 마시고, 그분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확산되도록 허락해 드릴 때, 더 많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신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안에 계신 주관적인 하나님을 소유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5.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해지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생명 요소를 받을 것이다—골 2:19.
 6. 우리가 이 생명 요소로 자라는 동안,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양 짓고, 같은 형상이 되게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찬양, 새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는 이 생명의 체험의 결과로 나온다—롬 8:29.
 7. 최종적으로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할 것인데, 이 신부가 주님을 돌아오시게 하고 우리를 다음 시대로 이끌것이다. 따라서 성경과 우주의 주요 초점은 로마서 8 장에 있다.